

나의 공강 일기 공모전

학 과

정치행정학과

학 번

성 명

홍

Topic.

1 | Learning portfolio

• • • 03 ~ 08

학생생활관 8관 지하 1층 AI SQUARE

2 | 자유교양전공 교과목

• • • 09 ~ 14

강의실 (기초교육관)

3 |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 • • 15 ~ 22

도서관 4층 C.Square



1. Learning portfolio



학기가 지남에 따라 성과가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무료함을 느껴
이번 학기 처음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다. learning portfolio 공모전
수상자들의 작품을 보며, 아직 인턴이나 수상경력 등과 같은 화려한 경력이 없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나가야 할지 무척 고민이 들었다.

그림에 참고한 원본 이미지



장소 : 학생생활관 8관 지하 1층 AI SQUARE

1. Learning portfolio



많은 고민 끝에 그동안 수차례 좋은 성과를 얻어왔던 전공수업에서의 발표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술자료를 접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면서 점차 완성도 높은 발표자료를 선보여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발표를 통해 스스로 발전했기에 포트폴리오의 주제를 '전공수업에서의 발표를 통한 자기발전'이라 정하게 되었다. 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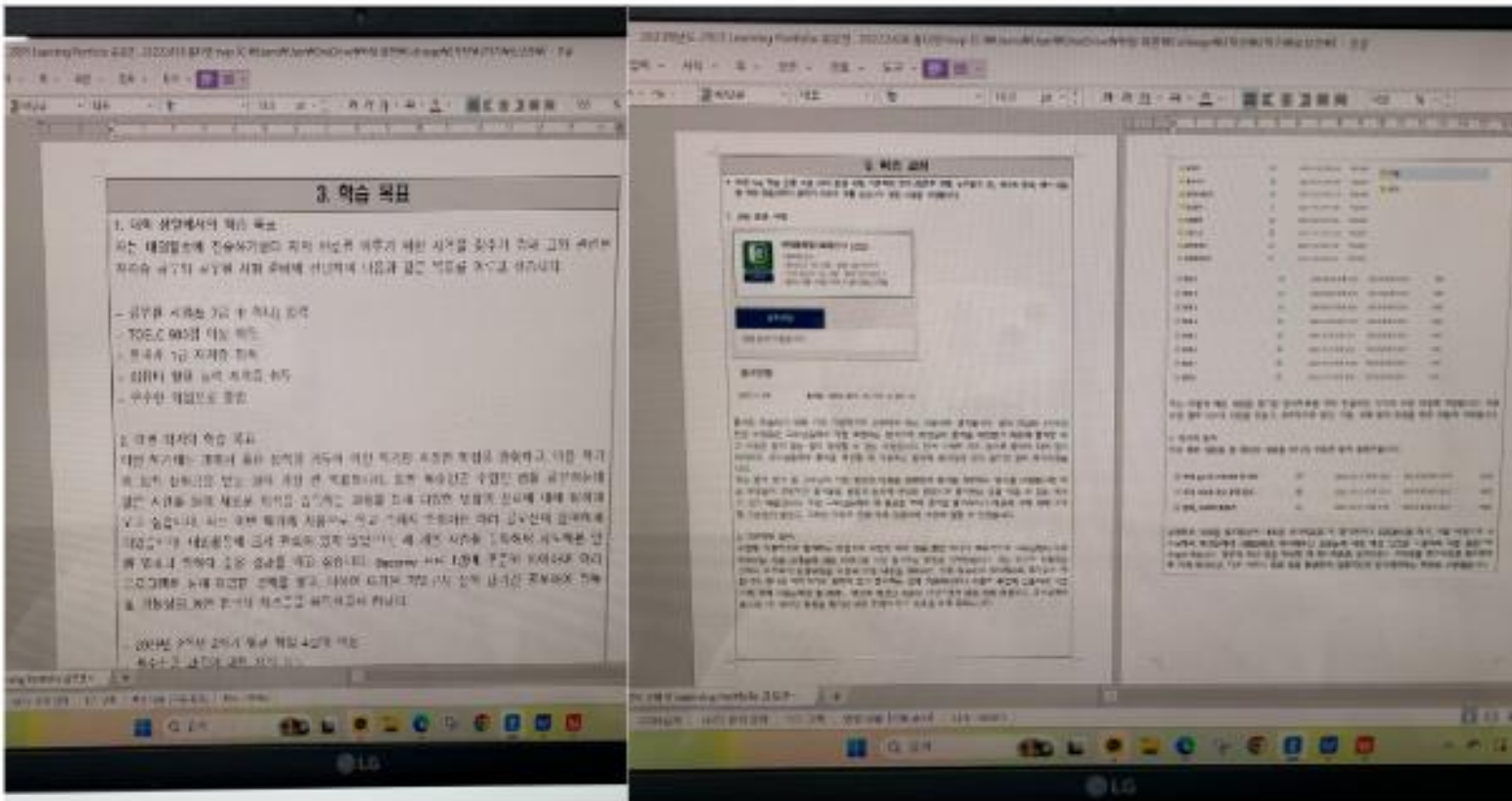
제목(주제) : 전공수업에서의 발표를
통한 자기발전

교과목명 : 현대중국정치의 정신사
+ 재무행정론, 인사행정론

이동영(재무행정론, 인사행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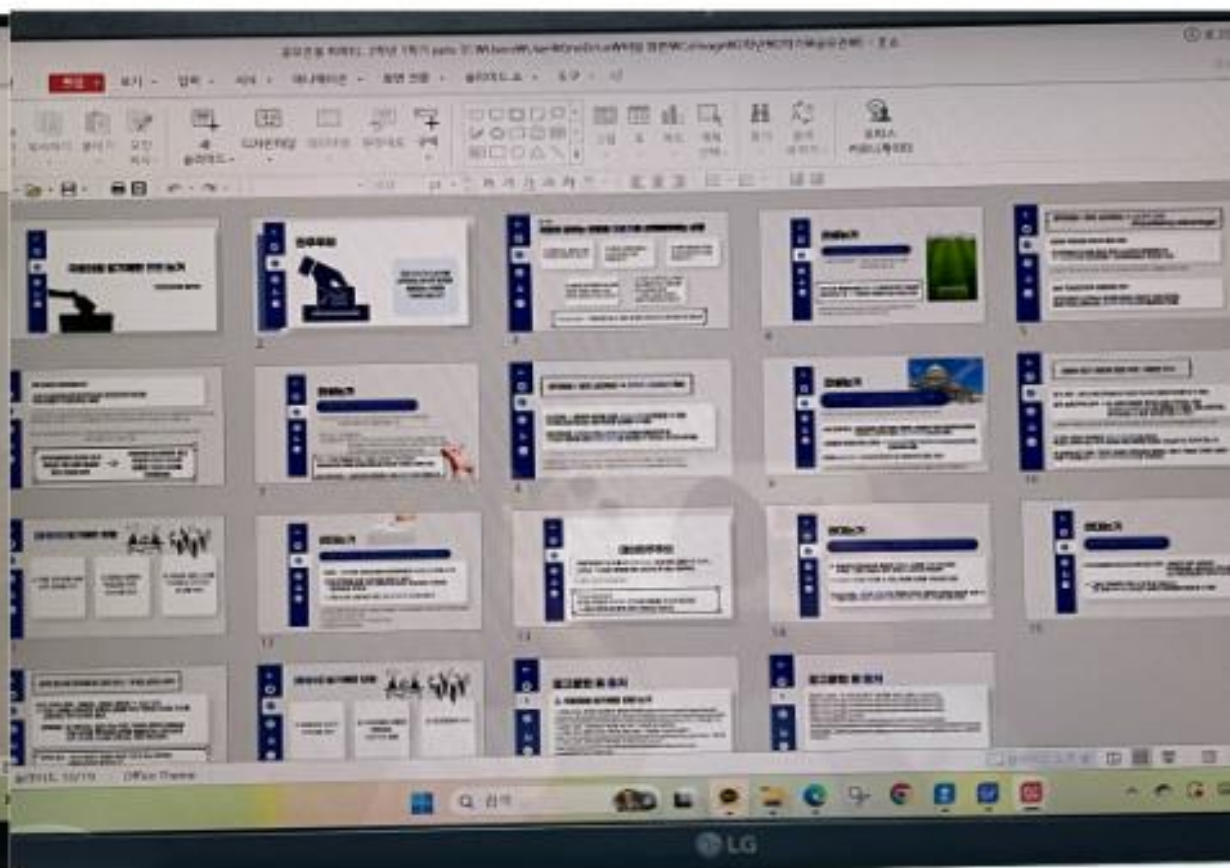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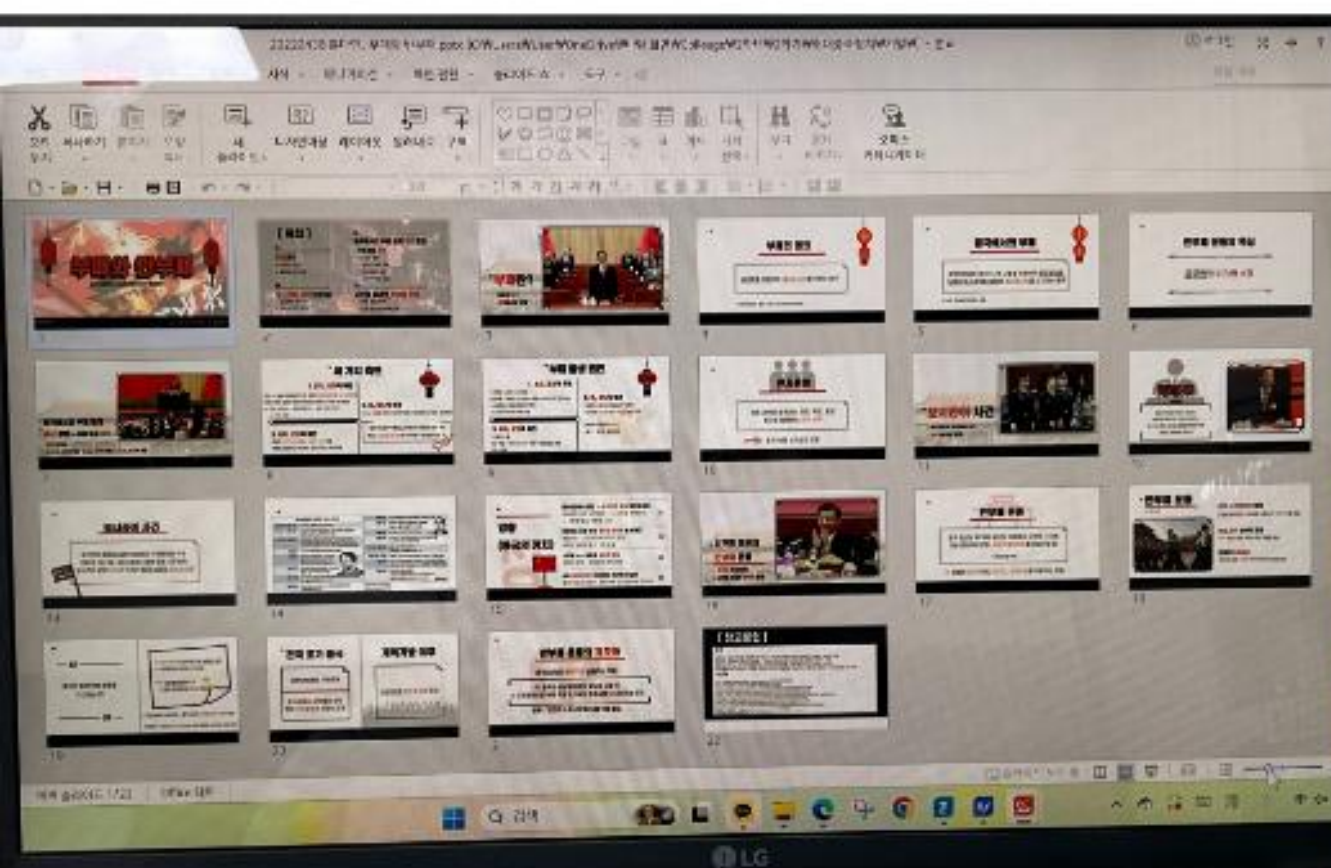
1. Learning portfolio



learning portfolio의 내용 중 3. 학습목표와 5. 학습과정

대학생활에서의 학습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나의
경력사항에 내세울만한 자격증 하나 기재하지
못하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나 발표를 준비하는 학습과정에서 내가
노력해왔던 과정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공모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Portfolio에 기재한 전공 발표 ppt 사진



2. 자유교양전공 교과목



현재 나는 '명제 동아시아의 스테디셀러를 읽다' 라는 과목을 수강하고있다. 허나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으로서

수강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현재까지 총 5개의 동아시아 관련 독서를 읽었고, 그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학우들과 함께 각자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공강시간에는 매주 책의 내용과 관련된 퀴즈 과제를 풀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오늘 전쟁 쓰레기 첫번째 발표자 중 한 명인 II*가 몸이 안 좋아서 발표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다연이가 발표를 하고 싶어했는데, 아직 그런 마음인가요?
이 발표는 하게 되면 ■■■ 학생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전쟁 쓰레기 책 1부 이외에 나머지를 읽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발표예요. 발표 생각 있으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03:17 오후

네 하고 싶습니다!



2. 자유교양전공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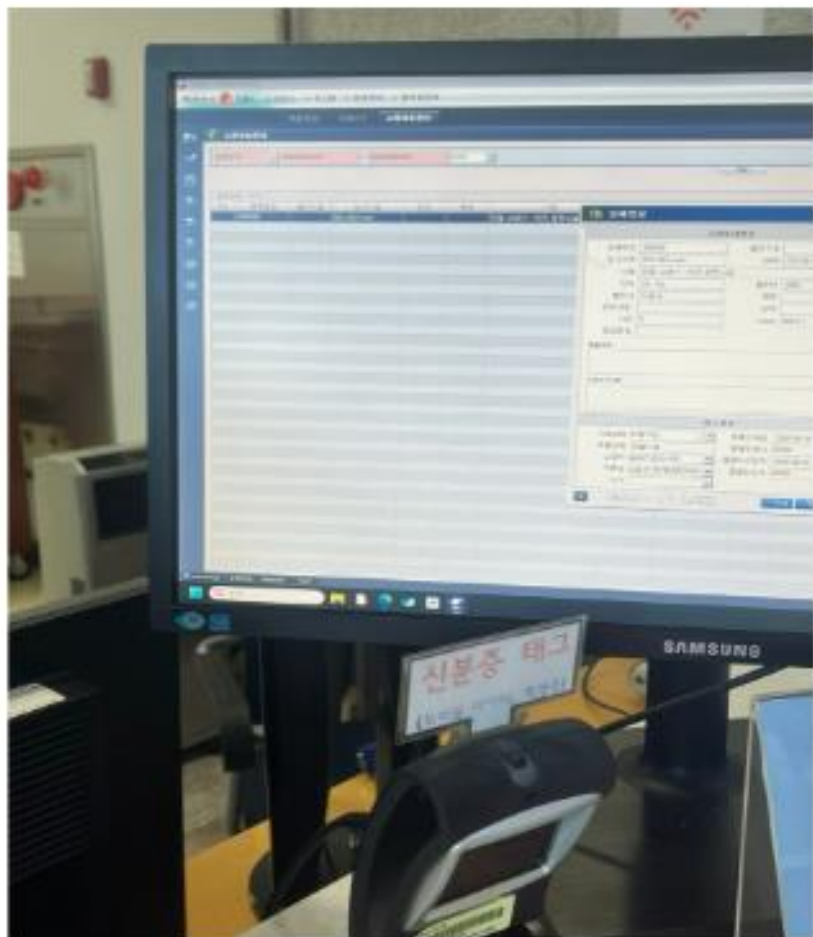
이 과목에서는 책 한권 당 두 명의 발표자가 책내용을 포함하여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또한 발표를 희망했으나, 발표자가 다 차버리는 바람에 발표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허나 기존의 발표자에게 사정이 생겨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운 좋게도 교수님께서 나에게 발표 의향을 묻는 쪽지를 보내주셔서 '전쟁쓰레기'라는 책의 2부 발표를 도맡게 되었다.

2. 자유교양전공 교과목



갑작스레 발표를 하게되어 미처 책을 빌리지 못했기에 도서관의 '간편 대출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전쟁쓰레기 영문판'을 주셔서 매우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3부 발표자분에게 쪽지가 와서 내가 요약한 2부 내용 요약본을 보내드리기도 했다. 책 2부의 분량이 거의 200페이지에 달해 ppt를 만드는데 꽤나 힘들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 대본을 수정한 후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그림에 참고한 원본 이미지



장소 : 도서관 2층 대출반납실

04:02 오후

님 안녕하세요!

혹시 발표 준비하실 때 2부 줄거리 요약
하신 내용을 저에게도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무래도 1부를 읽고 바로 3부를
들어가다 보니까 3부 줄거리 전개 방식이
2부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ㅠㅠ 2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3부 이해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04:34 오후

네 !! 지금 요약중인데 20페이지 정도가
넘어갈거같아요.....! 빨리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05:04 오후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총 분량은 15페이지예요
:)

3부 발표자와의 쪽지 내용 중 일부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 메일

^ 첨부 1개 24KB 모두저장 | 이미지로 보기

! 파일 저장 시 바이러스 검사 자동 수행



동아시아_전쟁쓰레기 대본 [redacted].docx 24.0KB



[redacted] 이 발표 준비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

잘 하셨는데, 일단 이 발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서두를 제가 좀 보충했습니다.

(메모 기능 활용, 빨간 색은 매끄러운 문장을 위해 제가 추가한 것)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제공하면 어느 순간 흥미를 잃게 되어요.

그러니까 일단 커다란 아웃라인을 두괄식으로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가 고쳐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생략했습니다)

1. 아,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발표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도드 준장 납치 사건에 관한 설명)

2.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조금 큰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너무 종이만 쳐다보지 말고 학생들을 보가면서☆)

3. 발표 당일에는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화면 세팅하고 계시면 좋겠고, usb에 발표를 담아오지 마세요.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학교 측에서 당부하는 사항입니다. 본인 메일로 보내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애쓰셨구요. 화요일에 봅시다~^^

장세진 드림

[명저] '동아시아사의 스테디셀러를 읽다' 발표 ppt 사진



발표 장소 : 강의실 (기초교육관 16205)

3.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나는 1학년 때부터 한림 become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종종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기숙사 상점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도 있으나, 10월 5일 학교 도서관 4층에서 진행되었던 천선란 작가님 초청 강의는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3.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내역



전체성적확인

장학금수혜내역

장학/상벌

장학이력				
년도	학기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방법
2022	1	[대학혁신지원사업]마일리지장학금	21,330	개인지급
2022	1		183,800	우선감면
소계			205,130	
2022	2	[대학혁신지원사업]마일리지장학금	35,560	개인지급
2022	2		965,700	우선감면
2022	2		1,000,000	개인지급
소계			2,001,260	
2023	1	[대학혁신지원사업]마일리지장학금	64,400	개인지급

그림에 참고한 원본 이미지



장소 : 도서관 4층 교육실

3.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천선란 작가님의 강연을 들으며 열심히 작가님의 말씀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나갔다.

이미 베스트셀러로서 크게 성공하신 작가님의 평소 생활 습관과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인간에게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더하여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가야하는지 같은 인생의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님 강연 메모 내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 스토리

사물 하나에도 어떠한 스토리를 넣음 -> 인문학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머리 또한 인문학에서 나옴.
기업들이 기술자 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집중하기 시작. 이 분야에서 스토리 라는 것은 인문학의 거대한 비유라고 생각.

책 속의 주인공을 보고 물음으로 이어지는 것, 사람에 대한 정보 습득 및 현대 문학의 밀접한 현대사회와의 관련성. 책에는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이 조각조각 파편처럼 나타나있음. 사람이 살아가는 글이므로 사회 문제들이 배제되지않음.

Sf 소설 - 기술과 인문학이 동시에 있음.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철학적 담론에 대해 담고있음.

Ex) 인간과 돌의 비교

인간은 돌에 대한 일방향적 해석 가능

인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한 궁극증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음.

Sf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하는가?

1. 일단 다가가기 : 고전 sf에서는 작가가 이 세계에 대해 설명하지않음. Sf에서는 전개 초반에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냥 글자를 읽고있다고 생각하기
2. Sf는 과학과 떼놓을 수 없음. 초반에는 예언적 성격을 많이 띰. 과학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인간의 상상력. 과학소설은 유일하게 기술보다 앞서있다. 로봇이라는 것 - 과학 소설에서 먼저 탄생하게 됨. 1926년 sf잡지에서는 이 장르가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예언 등으로 이루어진 낭만을 꿈꾸는 문학이라 언급. + sf는 시대에 따라 변화함. (냉전시대 : 주로 외계인과의 전쟁, 현대 : 장애인과 비 장애인 등에 관련된 사회문제등에 대하여 주로 다룸)
3. 실험의 장. 인공자궁에 대해 다룬 영화 소개.
독자 - 인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지니지 못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sf가 제시함.
도전하는 이유 :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들이 쌓여 산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산이 성공.

작가님 일상 : 아침 6시 기상, 저녁을 오후 2-3시에 먹음.. 아침에 모든 작업 끝냄. 저녁에는 운동.....
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성취를 느낄 수 없음.
하루에 성취를 느끼겠다는 느낌으로 웨이트를 시작.
항상 목표 두고 운동함. 성공하면 성취를 느낌.

3.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앞서 언급했던 1명제 과목의 영향을 받아 'Writing challenge' 3주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다. 평소 블로그를 즐겨 작성하는 편이라 글을 쓰는 것이 두렵지 않았으나, 3주 내내 각기 다른 키워드를 토대로 글을 작성해야한다는 것이 내심 부담으로 다가왔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글을 작성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나의 글에 공감과 응원을 댓글을 달아주셨다. 같은 키워드로 서로 다른 글을 작성하며 이를 서로 공유해나가는 활동은 매우 의미있게 느껴졌고, 모두 챌린지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Writing challenge'에서 처음 작성한 글 & 댓글들



(정치행정)
6시간 전 · 읽음 20

미션 인증 : 라이팅챌린지-3주 프로젝트-2023-2학기 >

#1일차 #처음

저는 '처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단숨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처음이란 곧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언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3주 라이팅 챌린지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저는 제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글을 쓰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 글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글을 작성해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를 3주 동안 '꾸준히 써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활동의 목표로서 글을 '하나의 일상루틴처럼 써보기' 라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았습니다.

평소 목표를 크게 두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저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담은 글을 공유하며 즐기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위한 명목상의 어떠한 글을 써내야만한다는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글을 작성하는데 몰입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의 내면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단숨에 도전을 떠올리셨다는 대목에서 능동적인 분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3주간 챌린지를 잘 완주해봐요!



처음들 통해 도전하려는 님의 다짐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쉽게 들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도전을 통한 인생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님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3주동안 함께 도전을 통해 나아가보자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3주 동안 꾸준히 글을 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나 휘황찬란한 글 솜씨보단 그냥 솔직하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갈 때, 더 멋진 글이 나올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이번 라이팅 챌린지 끝까지 완주합시다 😊



뭐든 처음 할 때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이팅 챌린지 3주간 하시면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시길

3. 비교과 마일리지 장학금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던 중 '우수서평 공모전'을 알게되었다.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번도 책에 대한 서평을 작성해본 경험은 없었기에 이 공모전이 서평을 써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신청하게되었다. 작성하기만 해도 마일리지 20점을 주고, 만약 수상을 하게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후 서평 지정도서 중 하나인 '네 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을 빌려 도서관 4층 C.SQUARE 에서 열심히 서평을 작성했다.

공모전에 제출한 서평

서평

서평추가 (로그인 필요)

완벽주의자에 대한 새로운 고찰 [**20222438 | 2023-11-02] ★★★★★ | 추천 (1)

처음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책 제목에 명시된 '완벽주의자'라는 용어 때문이었다. 또한 '내 명'이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현 시대를 통틀어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허나 책을 완독한 이후, 이 책에는 완벽주의자에 대한 고찰과 그를 향한 작가의 진지한 고뇌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자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행복한 완벽주의자, 그리고 불행한 완벽주의자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현존하는 완벽주의자들 가운데 자신이 행복한 완벽주의자라 여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무언의 질문을 던진다. 예상컨대 그들은 완벽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극히 제한된 삶을 살았다고 답할 것이다. 작가는 대표적인 완벽주의자의 예시로 입시경쟁의 승자(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와 프로 스포츠계의 금메달리스트 선수를 든다. 이들을 통해 나는 위의 예상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각종 메스컴과 광고에서는 주로 앞서 말한 '성공한' 자들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내거나,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자라버린 어른들에게도 성공을 갈망시키며,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그들이 완벽함을 갈구하도록 만든다. 작가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단순히 '그 일의 실패'라 받아들이며, 마음껏 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 프리츠 펄스의 편지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나는 실패한 시도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허나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실패한 시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이며, 작가의 사상이 현실보다 이상에 가까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는 이 구절에서 나의 노력만으로 내가 놓이 설정해두었던 수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던 '조별과제'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곧 완벽주의자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지만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함부로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는 '조별과제'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자아비판으로 한없이 나를 착아내었고, 그로 인해 작가가 책 속에서 언급했던 '나의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이 완벽을 추구하는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완벽함'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긍정적 의미로 발현된다고 생각해왔다. 사람들은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며, 이로써 성공의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없이 발전하고, 노력한다. 나 또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했고, 또 그렇게 배워왔다. 나에게 있어서 완벽의 의미는 곧 '성공'이었다. 나는 이 책을 불행한 완벽주의자의 모습에 가까운 나 같은 사람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해주고 싶다. 우리에게 결실히 필요한 부분은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시간이다.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자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완벽을 다르다고 언급한다. 허나 나는 이 구절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무언가를 수행해내기 위한 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받았던 각종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받게 될 여러 압박의 완급을 조절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며 행복한 완벽주의자에 도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 The End -

